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2013년 8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이 날이 기쁘요〉
백승학 (안토니오, 칠곡성당) _ 사진설명 6면

† 오늘의 전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카 16:19-31 참조)

얼핏 생각하면 부자가 딱히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기 재산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때문에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이웃인 라자로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1독서 아모 6,1ㄱㄴ.4-7

제2독서 1티모 6,11ㄱㄴ-16

복음 루카 16,19-31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무관심의 구렁

박재철 안토니오 신부 | 김천 성요셉마을 원장



얼마 전 대구 모방송국에서 몰래카메라로 실험을 했습니다. 폐지를 수집하시는 할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을 때, 차량에 탄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도와줄 것인가? 저도 흥미를 갖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한 명도 내려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호가 바뀌었다고 경적을 ‘뽕뽕!’ 울리며 할머니를 위협하고, 떨어뜨린 폐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나?’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내려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면 빨리빨리 가기위해 속도를 내고, 앞차가 조금만 미숙해도 화를 내고, 조금이라도 신호를 받기 위해 그렇게나 애쓰는 내가 과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TV에 계속 넘어지며 폐지를 떨어뜨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연속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차들! 저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큰 벽을 느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무관심의 “큰 구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왜 저승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는 그저 “날마다 즐겁게”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을 뿐

인데 말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남부럽지 않게 호화롭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부자는 죽어서 저승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과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그 큰 구렁은 분명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구렁이었습니다.

라자로의 부자의 대문 앞에 늘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저 자신의 즐거움과 호화로움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당연히 있는 그 모습으로 라자로의 부자에게서 잊혀 갔을 것이고, 무관심의 구렁은 건널 수 없이 넓어집니다. 그 부자의 모습이 결국 죽음 뒤 저승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식히고자하는 아주 작지만 간절한 바람이 자신의 구렁에 막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나는 오늘 무관심의 구렁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나의 생활에만 갇혀있지 않는지,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 3:2**



일곱 가지 성사는 어느 것이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성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드러내는데, 혼인하는 남녀의 결합이 상징하는 더 크고 신비로운 이 결합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 ㉓



먼저 나 자신부터

문화홍보실

1년 가까이 우리는 신앙의 해를 충실히 지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요약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신앙의 해의 모토는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이 둘을 합쳐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더 철저하게 복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복음화’에서 ‘새롭다’는 말은 무엇인가 신기하고 색다른 것을 뜻하지 않고, 본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계속 쇄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부합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을 텐데, 세상 지식이나 오락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내 차 앞에 불쑥 끼어드는 운전자가 나타나면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내 자식에게 무엇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어쩐지 성적과 진학이 더 급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눈 먼 이들이 주님께 고쳐 주십시오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눈동자 두 개를 못 만드실 리 없습니다. 이 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빵이 성체로 변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8년 간 마비되어 있던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요한 5,8)하셨을 때 복종했습니다. 내 성질에, 내 형편에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느님께서 명하시면 가능합니다. 과연 나는 그것을 믿습니까?

진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내 안에 들어온 하느님의 빛이 조금씩 퍼져서 내 몸 전체, 내 마음 전체, 내 생활습관 전체를 비추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화, 나 자신의 복음화입니다. 아직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느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필문**



“혼인성사는 ()을 상징한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총을 부부에게 준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661항)

이 코너를 오래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구 산간학교 제43주년의 해에 부쳐 (2)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교구 내 7명의 젊은 사목자들에 의해 여름 산간학교가 처음 시도된 것은 지금부터 꼭 43년 전인 1970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간이었다. 장소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방호리에 있는 포플러 숲(동곡)이었으며, 12개 본당에서 450명의 중고생들이 참가하였다. 다음 해인 71년에는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체험하며 우리 생활 속에 희망이 가득 차도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개 본당에서 64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876명이 참가하였다. 7월 26일에 대건고 교정에서 개교식을 갖고 청도군 금촌면 동곡동 강변에서 30일까지 4박 5일간의 산간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투입한 결과 본부의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었고, 야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천막 등 시설 장비에 차질을 빚어 밤 9시가 넘어 237명이 인근 금천초등학교로 피신하는 소동을 벌였다.

72년에는 교구 단위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동 주제를 내걸고 본당 단위의 산간학교를 벌였다. 73년에는 「공동체」라는 주제와 「샬롬」구호를 제정하였고 74년에는 「화해」를 주제로 정하여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계산성당에서 지도자 강습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75년에는 다시 교구 차원의 본당 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 본당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함이었다. 「사랑받는 갈대」란 주제와 「앗숨

(Adsum)」구호를 정하여 7월 18~19일 양일간 계산동에서 지도자 연수회를 가졌으며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었다. 76년에는 주제를 「말씀」(Verbum)으로, 구호를 「로케레 도미네」(Loquere, Domine)로 정하여 다시 본당 단위로 실시하였는데 19개 본당에서 개설하였다. 77년에는 주제와 구호를 「퀴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를 정하고 교구 교리교사 강습회를 가졌는데 233명의 지도교사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해에 산간학교를 개설한 본당은 모두 19개 본당이였다.

78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조금씩 문제시 되어 오던 산간학교 그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교구 사목국은 지도자 강습회만을 열었고 이제까지 공동으로 정해오던 주제와 구호는 물론 산간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당에 맡기는 자세를 취하였다. 산간학교는 각 본당마다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하기 시작했는데 소위 순수 피정형, 연방제형, 소단위 순례형 등이 있었다. 지독한 폭염의 금년 여름에도 교구내 많은 본당에서 산간학교 또는 신앙학교 신앙캠프를 개설 운영하였다. 그들 젊고 유능한 사목자와 봉사임원, 주일학교 교사 및 부형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성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대구 산간학교 신앙캠프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한다. **김문**

무관심의 대가

어느 부자에게 나이 들어 늦둥이로 낳은 일곱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게 본 아들이라 어찌나 귀엽고 귀하던지, 아들의 일곱 번째 생일 날, 그는 또래 아이들이 입어보지 못한 멋진 승마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산책을 나가보니 승마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 여간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슨 영문인지 씩씩해 보이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온갖 좋다는 명약과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시름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을 죽게 한 원인을 캐어보면 그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 입었던 그 옷에 수를 놓은 가난한 침모의 방에서 병균이 묻어 온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지하실 방에는 샅바느질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던 부인과 병들어 누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오한이 나 벌벌 떨자 마땅

히 덮을 이불도 없던 터에 부인은 수를 놓던 양가죽 승마복으로 따 뜻이 감싸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방안에 퍼져 있던 병균이 호화롭고 따 뜻한 대부호의 집안으로 옮겨갈 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잃은 대가로 그 부자는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척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어.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에 사랑의 해답이 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성 예로니모(9월 30일)

성서 학자이자 교회 학자이신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그레고리오 성인과 더불어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이시다. 로마에서 수학하시고 시리아의 광야에서 은수생활을 하였던 성인께서는 379년에 사제로 서품되셨다. 다마스 교황님의 비서로 임명되어 성서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하라는 임무를 맡아 완수하였는데 트렌토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서로 흔히 불가타(Vulgata, 대중적) 역본이라고 불린다. 베들레헴에서 수도생활에 정진하시다가

선종하신 성인께서는 성서 주해서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기셨으며 신학교와 수덕생활, 도서관 직원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 『앞산밀 북카페』 오픈

도서관과 카페를 겸한 열린 문화공간인 『앞산밀 북카페』가 9월 23일(월) 오후 4시 이문희(바울로) 대주교님과 떼이아르드 샤르맹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교구 사제, 수도자, 신자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했다. 앞산네

거리 인근 대경빌딩 3층에 자리한 앞산밀 북카페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문학, 음악, 미술,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양 강좌와 추억의 영화상영, 고전 함께 읽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및 강좌 문의 : (053)622-1900 | apbcafe@naver.com | <http://cafe.naver.com/apb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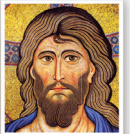
■ 교구장 동정

▷ 경주 용강성당 성전 봉헌식 _ 일시: 9월 15일(일) 오전 10시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8월 당선작

- 최우수상 : <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이 날이 기뻐요> 백승학 (안토니오, 칠곡성당)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 18, 3)는 말씀처럼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이 어린 아이를 통해 당신을 봅니다.
- 우 수 상 : <성체강복> 양철교(시몬, 두류성당)
- 장 려 상 : <주님께 가까워 지도록> 정지순(바오로, 만촌1동성당)



2012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3주일(9월 8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감실>입니다.

당첨자 : 황나연(글라라, 계산), 전정민(마리아, 남산), 유판윤(미카엘, 효목),

김효진(소화데레사, 성바울로), 김준규(스테파노, 수성)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0월 5일(토) 9:50 프란치스코 (월배성당 뒤)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

일시: 10.5(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묵주기도의 신비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10.15(화)~16(수), 매일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0.4(금) 18:00~6(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움직임을 통한 힐링

기간: 10.10~11.14(매주 목) 15:00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바틀로센터
문의: (010)3360-9817(회비: 8만 원)

염마오 피정(영신 수련)

기간: 10.11(금) 20:00~13(일) 15:00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안동 본원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3만 원)
문의: (010)5517-8833

교육 | 모집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설명회: 1차 10.12(토) 14:00, 대건고
2차 10.30(수) 19:00, 대건고
원서접수: 11.18(월)~20(수)
입학상담: 638-9332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14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전문대학
수시1차 모집: 9.4(수)~10.10(목)
<http://www.csj.ac.kr> 참조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화요일아침예술고 신입생 모집(서울대교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여 꿈을 열어주는 학력인정 대안학교
기간: 10.25(금)~11.5(화)
대상: 미술에 관심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문의: (070)8891-3830

새빛학교 기초 영어·한문반 모집

영어: 매주 화, 목 13:00(주 2회)
한문: 매주 화요일 15:00(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부담 장애인 그룹 홈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
대상: 성인 지적장애인(30명)

이용료: 소득수준별 실비부담
문의: 721-7090 / (010)2369-3140

샬레시오 겨울신앙학교 및 복사학교

주제: 달빛, 별빛 그리고 슈퍼스타.
나는 복사다.
홈페이지 참조: 광주시 청소년수련원
<http://www.fmayouth.or.kr>
문의: (010)8621-0940

소우주여행 몸 기억하기 심신치료

기간: 10.8(화)~9(수), 1박 2일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대상: 누구나 가능(인원 10명)
참가: 20만 원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2014년 3월, 총 264세대
1,000명상 인천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 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제4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초·중·고: 1.4~2.23(3, 5, 7주)
대·일반: 1.5~2.16(6주 또는 장기)
설명회: 10.19(토) 14:00, 남산성당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여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www.misoindental.com 야간진료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대의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업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근
(배드로)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영
(미카엘라)
허리통증 인공관절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백억두 정형외과 T.053)425-5919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동협 3층
T.053)252-687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전국최대 보험판매 전문법인
지에이코리아
GLOBAL ASSET KOREA (주)참사랑지사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을 찾습니다!
생,손보 22개사 제휴 - 대구,구미,경산 근무 가능
대표 이남수(윤일요한) 010-2514-2306
대구 삼덕동 진석타워 8층 053-720-3600

2014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 공동체 생활 학습은 무학고등학교 재학(경북 하양 소재)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베드로관, 854-2085

교구 성소담당, 250-3071

행사 | 모임

10월 첫째 주 가나강좌

일시: 10.6(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상동성당 은혜의 밤

일시: 10.8(화) 19:00

주제: 기쁨과 감사의 영성

강사: 박효철(베네딕도) 신부

일정: 찬미, 초청 강의와 미사, 치유 안수

버스: 401, 405, 704, 가창1, 급행2

대구평화방송 개국17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0.25(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변진섭, 안치환, 오정해, 파스,

기쁨과 희망(사제밴드) / 전석 2만 원

예매: 티켓링크, 251-2610, 2621

<http://www.dgpbcc.co.kr>

이태석신부님 뮤지컬(사랑해 톤즈)공연

기간: 10.4(금)~6(일)

금 19:3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장소: 영남대천마아트센터(지하철2호선)

신자 특별30% 할인(올해 주보지참시)

후원: 대구평화방송, 문의: 254-7241

교육 | 모임

교구 복음화 학교 기초과정 개설

기간: 10.17(목)~18(금) 14:00~17:30

10.24(목)~25(금) 14:00~17:3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대상: 구역장, 반장, 단체장(1인 2만 원)

마감: 10.10(목), 250-3056

제7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0.12(토) 13:30~13(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가톨릭전통차연합회 회원 모집

대구, 경북의 차인이며 신자로서

같이 차 봉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010)6716-5262 / 254-6631

까리따스 심리 상담

아동, 청소년, 부부, 가족갈등 문제

/ 심리상태 분석 후 상담진행

지도: 홍성남 마태오 신부

장소: 강남 까리따스 심리상담센터

문의: (02)523-0024

채용 | 안내

교구청 세탁실 직원 채용

자격: 35~60세 이하의 신자(여)

마감: 10.20(일)

문의: (010)9206-3224

가톨릭푸름터상담원 대체직원 채용

자격: 사회복지사 1,2급(만25세~35세)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근무기간: 11.1(금)~2014.1.31(금)

마감: 10.17(목), 문의: 764-8537

성요셉요양병원의 특별한 영성치유

거동이 불편하신 교우분들을 정성

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장효원 요셉

신부님과 매일미사를 봉헌하며 영성

치료를 느껴보세요.

상담문의: (010)6302-2409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박람회

일시: 10.1(화) 16:00~20:00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내용: 공연 및 다양한 체험활동

주최: 대구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 (070)7778-1027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현도(베드로), 이영혜(올리안나)

세란아동발달상담센터

보건복지부 공식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 발달지연, 학습부진, 난독증, 아동우울증, 인턴넷(개입)중독, 사회성부족, 틱장애, 감각통합장애, ADHD, 언어발달지체, 발음장애, 말더듬 등

원장: 김형우(F,히베르) ☎ 053)767-5227 www.seran.or.kr

무료상담, 서비스 비용 중 매월 10~22만원까지 국비지원 가능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황상강안우 황월포크

대구축협가맹점 대현점

1등급이상만 취급하는 대구축협 대현가맹점
대구시내 전지역 전화주문 및 무료배달!!(5만원 이상)
북구 대현동 휴먼시아2 상가 대현동사무소 옆

☎ 053)955-2846

대현점 서 화 교(요약집)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강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당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견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독이 되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박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성모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파타마, 루르드)-13일

출발일: 10월 30일, 11월 27일

순례경비: 4,50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 (주)성지여행 쏘렐레(유스티노)